

<http://dx.doi.org/10.17703/JCCT.2024.10.1.81>

JCCT 2024-1-9

보건의료계열 다직종 연계 교육프로그램의 효과

Effect of interprofessional education programs in Healthcare

박정희*, 김현일**, 이미향***

Jung Hee Park*, Hyun Il Kim**, Mi Hyang Lee***

요약 이 연구는 보건의료계열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환자안전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IPE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5일간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환자안전에 대한 지식과 환자안전 수행자신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주된 내용으로는 직종별 직무 역할 이해, 환자위험 예지 훈련, 시나리오 기반 환자경험, 개선전략 도출 등이었다. 연구 결과 IPE 프로그램 적용 후 환자안전지식은 39점에서 37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아졌다($p=.007$). 환자안전 수행자신감이 6.71점에서 7.50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졌다($p<.001$). 또한 임상 실습을 경험한 학생이 IPE 프로그램 적용 후 환자안전 지식이 더 높았으나 환자안전 수행 자신감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IPE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반복연구를 제언하며 IPE 프로그램의 확대운영과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보건의료계열, 다직종연계 교육, 환자안전 지식, 환자안전수행자신감

Abstract : This study aimed to develop an Interprofessional Education(IPE) program for third-year healthcare students to provide patient safety-oriented services and demonstrate professionalism, and to determine the effects of applying the program for five days on patient safety knowledge and patient safety performance confidence. Key topics included understanding job roles by profession, training in patient risk prediction, scenario-based patient experience, and strategies for identifying improvement. As a result of the study, after the application of the IPE program, the patient safety knowledge decreased statistically significantly from 39 points to 37 points($p=.007$). The patient safety performance confidence increased statistically significantly from 6.71 points to 7.50 points($p<.001$). In addition, students who experienced clinical practice had higher patient safety knowledge after applying the IPE program, but there was no difference in patient safety performance. Repeated studies are recommended to 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IPE program, and specific measures should be taken to expand and continuously manage the IPE program.

Key words : Healthcare, Interprofessional Education, Patient Safety Knowledge, Confidence in Patient Safety Performance

*정희원, 건양대학교 응급구조학과 부교수 (제1저자)
**정희원, 건양대학교 안경광학과 부교수 (참여저자)
***정희원,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3년 11월 13일, 수정완료일: 2023년 11월 23일
게재확정일: 2023년 11월 30일

Received: November 13, 2023 / Revised: November 23, 2023
Accepted: November 30, 2023
***Corresponding Author: haha@konyang.ac.kr
Dept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Korea

I. 서 론

최근 의료기관은 환자안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행정직 등 다양한 보건의료인의 협력이 중요하게 되었다 [1]. 이에 보건의료 전문가의 연계·협동 활동인 다직종 연계 교육(Interprofessional Education, IPE) 프로그램이 대두되고 있다 [2]. 다직종연계 교육프로그램은 전문가 간 교육이라는 용어로 유사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사항 중 하나이다[3] IPE는 서로 다른 직종 및 업무를 이해하고 직종 간 협업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환자치료와 관련된 오류를 줄이고 보건의료인의 전문역량을 높여 환자안전을 높이는 것이다 [4].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함으로써 직종 간 이해 뿐만 아니라 환자와의 관계에서도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 [5]

임상현장에서 IPE와 같은 다양한 협력 교육프로그램이 프로젝트, 워크숍 등의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IPE는 보건의료인을 양성하는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며 학생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필요하다 [2]. 보건의료를 전공하는 학생들은 입학 시부터 직업적 가치를 내면화하기 때문에 타 전문직종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가지기 전에 전문직종간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예비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IPE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타 직종과 협업에 대한 이해, 의사소통 역량강화, 임상적응에 대한 자신감을 높일 수 있다 [2]. 따라서 학부 때부터 IPE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환자중심으로 다직종이 협력하여 환자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PE 교육방법은 강의, 토론, 역할극, 프로젝트 사례기반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4]. 교육 방법에서 2가지 이상을 서로 조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강의와 역할극, 강의와 사례기반 시뮬레이션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 보건의료인은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환자중심으로 협업을 요구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론과 실습이 함께 이루어지는 교육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2015년 환자안전법에 제정되어 2016년부터 기생

되면서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다. 환자안전은 대상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으로 모든 보건의료인은 최우선순위에 두고 모든 치료와 진료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6]. 대부분의 환자안전사고는 보건의료인 개개인의 문제보다는 의료기관의 전체 시스템 문제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7]. 즉 다양한 보건의료인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서로의 직무를 이해하고 협력하여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교육을 학부에서부터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직종 연계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의대생과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전문직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기효능감과 전문직간 태도연구 [8], 보건의료계열 대상으로 다 직종 연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팀 의료에 대한 태도 연구 [9], 8개 병원에 근무하는 다직종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수행자신감, 자기효능감, 직군간 학습에 대한 태도 연구 [4]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보건의료인의 다직종 연계교육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활성화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임상실습을 진행하는 보건의료계열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환자안전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IPE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한 후 학생들의 환자 안전에 대한 지식과 환자안전 수행자신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시도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보건의료계열 학생을 대상으로 IPE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한 유사실험 연구로 단일군 사전사후 설계이다.

2.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일개 대학에 재학 중인 보건의료계열 3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수를 산출하기 위해 효과크기 .50, 유의수준 .05, 검정력 .90, 집단 수 1로 하였을 때 대상자수는 최소 44명이

필요한 것으로 산출되었다. 탈락을 고려하여 50명을 선정하였으며 IPE 프로그램을 수료하였고 설문지를 충실히 작성한 최종 44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3. 다직종연계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IPE 프로그램은 4박 5일동안 운영되었으며 프로그램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되었고 4일차는 헤커드 시간을 마련하여 밤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직종간 직무이해와 환자안전 주제로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방사선학과, 병원경영학과, 안경광학과, 응급구조학과, 임상병리학과, 작업치료학과, 치위생학과 교수와 의료기관의 해당 부서장들과 함께 부서별 실습방법 및 환자경험 시나리오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모의시뮬레이션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시나리오를 수정 보완하였다. 교육방법은 팀기반 학습, 사례바탕 소그룹 토론, 의료기관에서 환자경험, 역할극 등의 교육방법,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조별활동으로 구성하였다. 조별활동을 위해 총 8개조로 구성하였으며 각 조별로 다양한 직종이 모일 수 있도록 배정하였으며 조별 인원은 6~7명으로 구성하였다. 1일차는 친교활동, 2일차는 직종별 직무이해하기로 병원내 부서를 방문하여 각 직무별로 교육과 실습이 이루어졌다. 3일차는 환자위험예지훈련과 시나리오 기반 환자경험, 4일차와 5일차는 시나리오 기반 환자경험에서 나온 환자안전문제 분석 및 개선전략 수립으로 구성되어 있다. IPE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IPE프로그램 주요내용
 Table 1. Highlights of the IPE Programme

	활동주제	활동내용
1일차	친교활동	입교식, 외부업체 친교활동
2일차	직종 별 직무 이해	병원 부서 실습을 통한 타 직종 직무 이해하기
3일차	환자 안전 경험	환자위험 예지 훈련 병원에서 시나리오기반 환자경험
4일차	환자안전 경험	팀별 중간발표 및 피드백 개선전략(역할극, 동영상, 어플리케이션, 포스터등) 도출
5일차	성과 발표	성과발표 및 퇴교식

4. 연구도구

4.1 환자안전지식

환자안전지식은 Lee, Park & Bae[10]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총 50문항으로 “예”, “아니오”로 응답하며 정답은 1점, 오답은 0점으로 측정되어 최소 0점에서 최대 5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환자안전지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Lee 등[10]의 연구에서 KR₂₀(Kuder-Richardson Formula 20)은 .68이었고 본 연구에서 KR₂₀은 .54이었다.

4.2. 환자안전 수행자신감

환자안전수행자신감은 Lee 등[10]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총 16문항으로 Likert 척도 10점 척도이다. 각 척도의 점수는 1점 “전혀 수행하지 못함”에서 10점 “완전수행가능”까지의 점수를 갖는다.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수행자신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Lee 등[10]의 연구에서 Cronhach's alpha는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hach's alpha는 .96이었다.

5.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K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에서 연구승인(2023-04-015-001)을 받은 후 2023년 6월 26일~6월 30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교육과정 시작 전 연구책임자가 직접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방법, 진행과정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문에 대한 익명성, 비공개, 불이익 등이 없음을 보장한 후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대상자만 서면동의서를 작성한 후 연구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으며 윤리적 고려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연구도중 언제든지 참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한 설문지는 더 이상 연구에 사용되지 않고 즉시 폐기하게 됨을 설명하였다.

2.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연구변수의 특성은 기술통계로 분석하였으며, IPE프로그램의 효

과를 확인하기 위해 환자안전지식과 환자안전 수행자신감은 paired t-test를 사용하였으며 임상실습 경험에 따른 환자안전 지식과 환자안전 수행자신감은 t-test를 사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2와 같다. 남학생 9(20.5%), 여학생 35(79.5%) 참여학과는 총 8개학과이며 간호학과가 8명(18.2%)으로 가장 많았고, 임상실습경험이 없는 경우가 24명(54.5%), 환자안전교과목이 없는 경우가 33명(75.0%), 환자안전관련 교과목이 없는 경우가 23명(52.3%)으로 나타났다. 환자안전관련 교과목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가 44명(100%), 임상실습 전 환자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32명(74.4%)으로 나타났다.

표 2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44)

	구분	빈도(백분율)	평균±표준편차
성별	남자	9(20.5)	
	여자	35(79.5)	
연령			21.54±1.60
학과	간호학과	8(18.2)	
	물리치료학과	6(13.6)	
	방사선학과	5(11.4)	
	병원경영학과	6(13.6)	
	안경광학과	6(13.6)	
	응급구조학과	6(13.6)	
	임상병리학과 작업치료학과	1(2.3) 6(13.6)	
임상실습경험	있음	20(45.5)	
	없음	24(54.5)	
환자안전 교과목	있음	11(25.0)	
	없음	33(75.0)	
환자안전 관련 교과목	있음	21(47.7)	
	없음	23(52.3)	
환자안전 관련 교과목 필요성	있음	44(100)	
	없음	0(0)	
임상실습 전 환자안전 교육 실시	있음	33(75.0)	
	없음	11(25.0)	

2. 환자안전 지식

IPE 프로그램 전·후 환자안전지식의 차이를 측정 한 결과 표 3과 같다. 하부영역별로 살펴보면 환자확인, 고위험 약물, 수술/시술, 시설 환경영역에서 지식점수가 높아졌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는 없었다. 감염관리는 프로그램 전 17.93±1.97점, 프로그램 후 16.05±1.79점으로 낮아졌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5.42, p<.001)가 있었다.

표 3. 환자안전 지식
Table 3. Patient Safety Knowledge (n=44)

	전	후	t	p
	M±SD	M±SD		
환자 확인	2.45±.50	2.53±.55	-1.14	.262
효과적 의사소통	2.39±.54	2.26±.73	1.23	.225
고위험 약물	2.69±.56	2.77±.48	-0.65	.519
수술 / 시술	2.14±.77	2.26±.73	-1.00	.323
낙상	2.28±.63	2.23±.48	.49	.623
안전사고	2.79±1.06	2.74±1.18	.24	.814
감염관리	17.93±1.97	16.05±1.79	5.42	<.001
시설환경	6.55±1.02	6.59±.96	-.26	.793
총	39.21±3.82	37.43±3.39	2.82	.007

3. 환자안전 수행자신감

IPE 프로그램 전·후 환자안전 수행자신감은 IPE 프로그램 전 6.71±1.92점, 프로그램 후 7.50±1.73점으로 IPE 프로그램 적용후 환자 안전 수행자신감이 높아졌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3.79, p<.001). 하부영역별로 살펴 보면 환자 확인(t=-4.44, p<.001), 의사소통(t=-3.95, p<.001), 수술/시술(t=-3.90, p<.001), 낙상(t=-3.63, p=.001), 안전사고(t=-3.73, p=.001), 시설환경(t=-2.07, p=.045) 에서 IPE 프로그램 적용 후 환자 안전수행자신감이 향상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4).

표 4. 환자안전 수행자신감
Table 4. Confidence in Patient Safety Performance (n=44)

Variables	전	후	t	p
	M±SD	M±SD		
환자 확인	7.54±2.15	8.84±1.46	-4.44	<.001
효과적 의사소통	5.17±2.49	6.44±2.35	-3.95	<.001
수술/시술	5.42±2.92	6.88±2.79	-3.90	<.001
낙상	7.35±2.18	8.49±1.55	-3.63	.001
안전사고	6.93±2.37	8.12±1.69	-3.73	.001
감염관리	7.26±2.05	7.62±1.97	-1.60	.117
시설환경	6.31±2.22	6.85±2.21	-2.07	.045
합계	6.71±1.92	7.50±1.73	-3.79	<.001

4. 임상실습 경험에 따른 IPE 프로그램 후 환자안전 지식과 환자안전 수행자신감의 차이

임상실습 경험에 따른 IPE 프로그램 후 환자안전 지식 및 수행자신감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환자안전지식은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3.035, p=.004$).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학생이 환자확인($t=3.564, p=.001$), 낙상($t=2.886, p=.008$), 감염관리 ($t=2.632, p=.012$) 지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환자안전 수행자신감은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학생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605, p=.548$).

발하고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모집공고를 통해 프로그램 참여자를 선발하여 의료기관과 학교에서 5일간 운영하였다. 주된 내용으로는 직종별 직무 이해, 환자위험 예지 훈련, 시나리오 기반 환자경험, 개선전략 도출 등이었다.

IPE 프로그램에 참여 한 학과는 총 8개 학과로 환자안전 교과목이나 환자안전관련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이 47.7%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 환자안전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11]. 대부분의 보건의료계열 학생은 의료기관이 미래 직장이 되기 때문에 대학에서의 환자안전에 대한 사전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환자안전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는 학과도 있지만 대부분 임상실습 전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활용하여 환자안전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대학에서의 환자안전에 대한 선행하

표 5. 임상실습경험에 따른 IPE프로그램 후 환자안전지식 및 수행자신감의 차이

Table 5. Differences in patient safety knowledge and performance confidence after an IPE programme according to clinical experience (n=44)

Variables	지식			환자안전 수행자신감		
	임상실습 경험 유(n=20)	임상실습경험 무(n=24)	t(p)	임상실습 경험 유(n=20)	임상실습경험 무(n=24)	t(p)
	M±SD	M±SD		M±SD	M±SD	
환자확인	2.80±.41	2.25±.60	3.564(.001)	9.00±1.45	8.58±1.55	.911(.367)
효과적 의사소통	2.35±.81	2.20±.65	.639(.526)	6.97±2.01	5.77±2.70	1.689(.099)
수술/시술	2.25±.78	2.29±.69	-.187(.852)	7.45±2.70	6.50±2.82	1.132(.950)
낙상	2.45±.60	2.04±.20	2.886(.008)	8.27±1.68	8.64±1.40	-.796(.431)
안전사고	2.90±1.33	2.66±1.04	.650(.520)	7.60±1.81	8.62±1.46	-2.069(.045)
감염관리	16.75±1.44	15.41±1.83	2.632(.012)	7.85±1.70	7.21±2.37	1.043(.303)
시설환경	6.70±.97	6.50±.96	.667(.509)	6.65±2.21	6.87±2.30	-.328(.744)
합계	38.95±2.96	36.04±3.21	3.035(.004)	7.60±1.67	7.27±1.88	.605(.548)

IV. 논의

이 연구는 보건의료계열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환자안전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IPE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5일간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환자안전에 대한 지식과 환자안전 수행자신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IPE 프로그램은 보건의료계열 교수로 구성된 TFT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직종 간 직무이해와 환자안전을 주제로 환자경험 시나리오를 개

습을 위한 교과목 개발이나 환자안전 IPE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IPE 프로그램 전·후 환자안전 지식의 차이를 하위 영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환자 확인, 고위험 약물, 수술/시술, 시설 환경영역에서 지식점수가 높아졌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는데 이는 Ha의 연구 [12]결과와 유사하였다. 환자안전 지식의 문항 난이도가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지는데 환자확인처럼 난이도가 낮은 문항인 경우는 IPE 프로그램 적용 전·후 모두 정답률이 높게 나타났으나 난이도가 높은 문항은 반대로

IPE 프로그램 적용 후 낮게 측정되었다. IPE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중에는 관련 교과목을 미이수하였거나 임상실습 경험이 없는 학생도 참여하여 환자안전에 대한 교육이 부족했기 때문에 정확한 지식 전달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IPE 프로그램이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식을 통합하는 과정이만큼 통합적 사고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선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환자안전 지식 도구의 신뢰도가 $KR_{20} = .54$ 로 낮게 나타나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환자안전지식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IPE 프로그램 전·후 환자안전 수행자신감은 IPE 프로그램 적용 후 높아졌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Ha의 연구 [12] 결과와 일치하였다. 다직종 연계프로그램은 전문직 간 태도를 높이는데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8-9], 태도와 수행 자신감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기 때문에 [13-15] IPE 프로그램이 태도와 수행자신감을 향상시키고 있음을 입증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임상실습 경험에 따른 IPE 프로그램 후 환자안전 지식 및 수행자신감의 차이를 살펴보면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학생이 환자안전 지식 총점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임상실습 전 시행한 환자안전에 대한 교육과 임상실습 경험이 지식수준을 높이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난이도가 높은 환자안전 지식 문항에 대한 이해도 임상실습 경험이 없는 학생에 비해 높았을 것이고 IPE 프로그램도 이해도가 높은 학생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환자안전 수행자신감은 임상실습 경험 유무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IPE 프로그램이 임상실습 경험, 환자안전 교육경험과 무관하게 모든 학생의 환자안전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켰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IPE 프로그램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역할과 진료 시스템을 경험하고 서로의 직무를 이해하며 보다 안전한 환경과 시스템을 위한 개선전략을 도출하기까지 팀원과의 소통과 협력 그리고 전문가의 적절한 개입이 환자안전 수행자신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여겨진다.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보건의료계열 전문직

에게 타 직종과의 연계 역량이 점점 강조되고 있는데 [16], 이는 환자안전 및 의료활동과 함께 의료현장에서의 전문직 협업연계 교육의 중요성의 지표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17]. 또한 IPE 프로그램을 통해 협업에 대한 이해, 자신감, 의사소통의 명확성과 임상실습 준비 수준을 높여 줄 수 있기 때문이다 [18]. 미국의 경우 의학, 간호학, 약학, 물리치료학 등 다양한 보건의료계열 분야에서 전문직 간 교육을 통합한 교육과정을 인증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19]. 하지만 우리나라의 보건의료계열 학과의 경우 과도한 교육과정의 운영으로 공동수업의 편성이 쉽지 않기 때문에 다직종 연계 교육과정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IPE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입증하는 연구가 점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1, 4, 8, 9, 12] 따라서 IPE 프로그램의 확대운영과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V. 결 론

본 연구는 보건의료계열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환자안전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IPE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5일간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환자안전에 대한 지식과 환자안전 수행자신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 결과 IPE 프로그램 적용 후 환자안전수행자신감을 향상시켰으나 지식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임상실습을 경험한 학생이 IPE 프로그램 적용 후 환자안전 지식이 더 높았으나 환자안전 수행감은 차이가 없었다. IPE 프로그램이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식을 통합하는 과정이만큼 통합적 사고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선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IPE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반복연구를 제언하며 IPE 프로그램의 확대운영과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건의료계열 학부생을 대상으로 환자안전 지식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References

- [1] S. Y. Kim. "Perceptions and attitudes towards interprofessional education in medical schools", *Korean Medical Education Rev.* Vol.19, No.1, pp.10-17. 2017. DOI:<https://doi.org/10.17496/kmer.2017.19.1.10>
- [2] J. H. Seo, E. S. Song, S. E. Choi, K. S. Woo. "Patient safety in Korea: current status and policy issues", *KIHASA*. pp.11-12. 2016.
- [3] J. S. Lee, B. S. Lee, S. Y. Kim, W. Hideomi, "A systematic review and case reports of interprofessional education",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Vol.28, No.1, pp.155-165. 2020. DOI:<https://doi.org/10.14519/kjot.2020.28.1.11>
- [4] K. J. Park, S. H. Ko, S. K. Eo, C. W. Kim, H. S. Kim, H. H. Choi, E. K. Eo. "Interprofessional education for patient safety in health workers of various hospitals using active learning strategies", *Korean Journal Health Communication*, Vol.15, No.2, pp.109-115. 2020. DOI:<https://doi.org/10.15815/kjhcom.2020.15.2.109>
- [5] J. Barr, R. Bull, K. Rooney, "Developing a patient focused professional identity: an exploratory investigation of medical student's encounters with patient partnership in learning", *Advances in Health Sciences Education*, Vol.20, No.2, pp.325-338. DOI:<https://doi.org/10.1007/s10459-014-9530-8>
- [6] J. Jeong, Y. J. Seo, E. W. Nam. "Factors affecting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at nursing divisions of two university hospitals", *Korean Journal of Hospital Management*. Vol.11, No.1, pp.91-109. 2006.
- [7] J. E. Kim, K. E. An, S. H. Yun. "Nurses' perception of the hospital environment and communication process related to patient safety in Korea",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13, No.3, pp.321-334. 2007.
- [8] B. I. Kwon, S. Y. Jung. "Development of beginning IPE program for medicine and nursing student", *Journal of Healthcare Simulation*. Vol.6, No.2, pp.38-48. 2022. DOI:<https://doi.org/10.22910/KOSSH.2022.6.2.1>
- [9] K. S. Oh, E. J. Kim, K. H. Kim. (2022). "The effect of Interprofessional education(IPE) program on college students' attitude toward team medicine", *Journal of the Chosun Natural Science*. Vol.15, No.2, pp.55-61, 2022. DOI:
<https://doi.org/10.13160/ricns.2022.15.2.55>
- [10] M. H. Lee, J. H. Park, S. H. Bae. "The Knowledge and confidence in performance on patient safety among health-related majors: convergent approach",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7, No.1, pp.219-227, January. 2019. DOI:<https://doi.org/10.14400/JDC.2019.17.1.219>
- [11] M. R. Kim "Concept Analysis of Patient Safety" *J Korean Acad Nurs* Vol.41 No.1, pp.1-8, 2011. DOI: 10.4040/jkan.2011.41.1.1
- [12] S. M. Ha, E. J. Kim, E. H. "Shin. Interprofessional Patient Safety Education for Undergraduat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10. No. 2, pp. 261-268, 2019
- [13] J. W. Yoon, "Effect of Attitude of Patient Safety and Confidence in Safety Nursing on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y in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safety culture* 14. pp. 31-45, November 2021.
- [14] S. J. Park, H. S. Choi and J. Y. Kim, "Effects of Nursing Students' Knowledge, Attitude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Confidence in Performance of Patient Safet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0, No. 9 pp. 341-350, September 2019.
- [15] S. U. Wie, "Attitude and Confidence on Patient Safety of Undergraduate Healthcare profession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7. No. 2, pp. 265-273, February 2019.
- [16] Y. S. Kim, S. J. Yu. "An Exploratory Study on Interprofessional Education (IPE) in the Fields of Health, Medical and Welfare in Universities" *Counseling psychology Education Welfare*, Vol. 8, No. 1 pp.99-112, February 2021
- [17] R. Rebecca Olson, A. Bialocerkowski "Interprofessional education in allied health: A systematic review" *Med Educ*, Vol. 48 No. 3 pp.236-46, 2014.
- [18] J. Lee, B.S. Lee, S.Y.Kim, H. Watanabe "A Systematic Review and Case Reports of InterProfessional Educatio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Vol.28 No.1 pp.155-165, December 2020. DOI : <https://doi.org/10.14519/kjot.2020.28.1.11>
- [19] S. Speakman "Interprofessional education and collaborative practice: Creating a blueprint for nurse education" Edited by National League for Nursing: Philadelphia, Wolters Kluwer Publishers, pp.8-56, 2017.